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II.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한국선교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4.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새 출발과 존 J. 힐 선교사

1) 존 J. 힐 선교사의 초기 선교활동(1939.06.21-1940.11.16)



존과 에스터 힐(John and Esther Hill) 선교사 부부(1939년)

존 J. 힐(John Jesse Hill)은 1913년 3월 22일 오클라호마 주 아피톤(Ahpeatone)에서 태어나 1931년 인디애나 주 로웰(Lowell) 고등학교를 차석(Salutatorian)으로 졸업하였고, 1936년 5월에 테네시 주 소재 존슨성경대학(현 Johnson University)을 차석(Salutatorian)으로 졸업하였다. 힐은 로웰에서 10살 때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이후로 줄곧 그리스도(인)의교회 신자였다. 힐은 성경대학 3학년 때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잃은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도가 복음의 구두 선포 곧 “전도의 미련한 것”(by the oral proclamation of the gospel - "the foolishness of preaching"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설교자가 되려고 하였고, 다른 어떤 직업(부름)도 동료 인간들과 주 예수님을 그토록 위대하게 섬길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입문하였다고 했다<*Christian Standard(CS)*, 15 September 1934: 646>.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때 장래사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던 힐은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1936년 봄에 존슨성경대학을 방문하였을 때 그와 선교사역에 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학장 알바 로스 브라운(Alva Ross Brown)은 그런 힐을 채이스에게 적극 추천하였다<한국인 전령(Korean Messenger, KM), 1938년 10월호>.

힐은 존슨성경대학을 졸업한 그해 1936년 7월 5일 로웰교회의 오후 예배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Ordination,” *CS*, 18 July 1936: 702>.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 에일머(Aylmer, Ontario)에 소재한 그리스도의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 힐은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지에 실은 글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과 “제자들 교회”(Disciples church)로 부르거나 불리지 말고 “그리스도의교회”(church of Christ)로 불러야하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CS*, 2 January 1937: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은 캐나다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인디애나 주 로웰 공공도서관(Lowell Public Library in Indiana)이 지방지 <로웰 트리뷴>지에 실린 존 J. 힐(John Jesse Hill)에 관한 기사들을

취합한 내용들(<https://www.lowellpl.lib.in.us/hilljohn.htm>)과 <크리스천 스탠다드>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 힐은 목회를 시작하여 2년이 막 지난 1938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한 준비를 1년간 하였다. 존슨성경대학의 학장 알바 로스 브라운과 채이스 선교사가 존 힐이 한국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도록 교회들에게 강력히 추천하였다. 브라운 학장은 “힐이 (되돌아갈 수 없도록) 자신이 건너온 다리들을 불태우고 있고(He is “burning his bridges behind him”, 가능하다면 신속히 선교지에 가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브라운은 힐이 대부분의 교과목들에서 A학점을 받은 매우 훌륭하고 특별한 성숙한 사고력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표명한 인재라며 강력히 추천하였다 <“Another Missionary for Korea,” CS, 3 September 1938: 856; 10 September 1938: 893>. 그리고 힐은 이듬해인 1939년 4월 22일 에드워드 J. 케인(Edward J. Cain, minister at Connorsville)의 주례로 인디애나 주 워렌 출신의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 of Warren, Indiana)와 혼례를 치렀다 <“Missionary J. J. Hill Marries,” CS, 13 May 1939: 462>. 그리고 나서 꼭 한 달이 지난 1939년 5월 23일 존(만 26세)과 에스더(18세) 힐 부부는 한국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존과 에스더 힐은 1939년 6월 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고쿠사이 여객선(Kokusai Line)인 가노마루(Kano Maru)라 불린 일본 화물수송선을 탔다. 12명의 승객 가운데 3명은 교파교단의 선교사들이었다. 배는 보름만인 6월 16일 금요일에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그레이스 팰함(Miss Grace Farnham) 선교사가 요코하마까지 마중 나와 도쿄로 안내하였다. 힐 부부는 도쿄에서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의 딸 앨리스(Alice Hitch)와 한국으로 건너간 히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요츠야선교부에 투입된 오웬 스틸(Owen and Shirley Still) 선교사 부부 그리고 존스(Miss Jones) 선교사를 만났다. 고향(Lowell, Indiana) 사람이자 감리교 선교사인 메이 베일리(Miss May Bailey)도 만났다. 이튿날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여 배로 오사카에 6월 18일 주일날 도착하였다. 선교사 M. B. 매든(Madden)이 마중을 나와 이민국수속과 세관 검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화요일까지 매든 가족과 해롤드 콜(Harold Cole) 선교사 가족 그리고 브래일리(Bralely) 가족을 방문하였고, 오사카의 명소와 선교지를 둘러보았다.

오사카에서 화요일에 기차를 타고 밤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다. 밤새 배로 이동하여 수요일 아침 6시경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박판조 형제를 부산에 보내 힐 부부를 서울로 안내하게 하였다. 6월 21일 오후 3시에 서울(Keijo, 경성)에 도착하였다. 채이스와 히치 부부가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와 주었다. 채이스의 부인은 중국에 가고 없었으므로 며칠이 지난 후에 만날 수 있었다 <“A News Letter,” KM, 1939년 8월호; “New Missionaries, Mr. and Mrs. John J. Hill Arrive in Korea,” CS, 2 September, 1939: 858>.

1939년 여름에 선교사 가족들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에서 함께 휴가를 가졌다. 해롤드 콜 부부(Harold Cole, 오사카), 루스 슈노버(Ruth Schoonover, 도쿄),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부부와 딸 앨리스(Alice), 존 채이스 가족 및 존 힐 부부가 함께 하였다. 이 휴가 모임은 토마스 히치 가족의 송별회를 겸한 것이기도 하였다. 힐

치 부부와 딸 애니(Annie)는 이 휴가를 끝으로 8월말에 한국과 일본을 떠나 호주로 영구 귀국하였다. 히치의 딸들 가운데 에밀리(Emilie)는 이미 4월에 귀국하였고, 도쿄에서 사역을 했던 앨리스(Alice)는 영국정부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1940년 10월 30일 귀국하였다. 이 무렵에 힐은 일본 동경에서 활동했던 W.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 선교사 부부의 일생기(一生記), <타오르는 횃불>을 읽고, 특히 한국 선교에 관련된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Taejon Korea, 18 April 1972), <http://kccs.pe.kr/rmes002.htm>; 初譯: <썰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2.htm>(1999.3);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30-39].



1939년 후반기에 사역을 시작한 존 힐은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면서 영어성경클래스들을 운영하였고,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도 강의를 하였다<“1939 Viewed from January 1940,” KM, 1940년 2월호>. 그리고 12월 31일 내수정교회에서 7명의 여성들이 침례를 받을 때 성낙소 목사를 보조하였다. 침례를 받은 여성들 가운데 2명은 박판조 목사가 막 개척한 제4교회(산돈암정기독교교회) 신자들이었다. 힐은 1939년 한 해 동안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총 88명이었고, 1940년 2월 1일까지 2개의 교회가 개척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The Voice of the Hills,” KM, 1940년 2월호>. 이 기간에 힐은 <크리스천 스탠다드>지에 보낸 글에서 존 힐(1939년 송월정 기독교회선교부, 1939-40년) 도로가에 세워진 수많은 간판들을 보고 또 그 막강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로가나 자기 소유지에 전도용 간판들을 세우지 말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CS, 1939년, 날짜와 페이지 미상>.

1940년 1-2월 동안에 38명이 침례를 받았다. 존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과 모금을 위해 6월 1일 미국에 들어간 사이 힐 선교사가 선교부의 책임자로 사역을 감당하였다<“Korean Mustard Seeds,” KM, 1940년 4월호>. 힐은 3월 중순경에 내수정기독교교회에 영어성경클래스를 개설하였다. 클래스 시간은 주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였는데, 이 시간에 클래스를 개설한 이유는 클래스가 끝나마자마자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저녁집회로 영어성경클래스 참석자들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영어성경클래스 모임 때 7명이 참석하였는데, 참석자 대부분은 ‘기독교회’(그리스도의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그날 저녁 성낙소 목사는 침례에 대해서 설교를 한 후에 혹시 침례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영어성경클래스에 참석한 7명의 학생들 가운데 4명이 침례를 받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리고 4명의 자원자들 가운데 2명은 그 밤에 즉시 침례를 받고 싶다고 자원함으로 기독교회선교부

로 자리를 옮겨서 그 밤 9시 30분에 2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 가운데 한 명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장로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다. 그 학생은 침례를 받은 후에 말하기를,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a real Christian)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Hill Top Experiences, By J. J. Hill,” KM, 1940년 4월호>.

또 힐은 선교지에서의 일상 곧 자신의 주일날 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오전에 아침식사를 하고 성경을 조금 공부한 다음 교회에 갈 차비를 한다. 10시 15분에 교회를 향해 출발한다. 교회는 대략 5킬러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45분 정도 걷거나 전차를 타거나 하여 오전 11시 예배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도착한다.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오후 3시에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기독교회선교부로) 온다(전 주일에는 13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 침례예식은 종종 오후 4시까지 지속된다. 오후 4시 30분에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다. 오후 6시에 예배를 끝내고 걸어서 집으로 온다. 그리고 나서 대략 20분 이상 걸리는 한국인교회로 간다. 그리고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영어성경클래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8시 30분까지 한국어 설교예배를 경청한다. (‘외국인들인’ 우리에게는 한 시간 내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9시경에 저녁을 먹는다<“A Lord’s Day at the Mission,” KM, 1940년 4월호>.

존 힐은 6월부터 11월 중순까지 5개월 반 동안 기독교회선교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업무가 갑자기 많아졌다. 기독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인 존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Missionaries’ First Year in Korea,” CS, 24 August, 1940: 842>. 힐은 이때 만 27세였고 선교사경력 1년차였다. 채이스는 힐보다 8살이 더 많은 35살이었고 선교사경력 11년차였다. 채이스 가족은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 기독교회선교부 건물구입에 따른 부족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1940년 6월 1일에 서울을 떠나 18일에 미국에 도착하였다<“Some Accomplishments,” KM, 1940년 12월호>.

존 채이스 가족이 한국을 떠난 지 4개월쯤 지난 10월에 미국정부는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떠날 것을 충고하였고 배를 보내 철수를 도왔다. 그래서 존 힐 부부는 한국에 온지 17개월만인 1940년 11월 16일 총 219명의 미국인들을 태운 마리포사(Mariposa)호를 타고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철수하였다. 이들 가운데 189명이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이듬해인 1941년 9월에는 일제에 입건되거나 기소되었던 잔류(殘留) 선교사 22명 가운데 대부분이 철수하였고, 끝까지 잔류한 원한경(H. H. Underwood)을 포함한 40여명은 1941년 12월 7일 아침에 발발(勃發)한 태평양 전쟁이후 일제에 억류되었다가 1942년 6월에 연합국이 억류한 일본인과 맞교환을 위해 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이송되었고 8월이 되어서야 미국 뉴욕에 도착할 수 있었다[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435-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외국인 선교사 추방 사건)]. 이 같은 사실은 채이스가 기독교회선교부 재산보호와 내국인 사역자들의 일 년치 교회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1941년 2월 24일 급거(急遽) 입국하여 3월말까지 체류할 당시에조차 조선 땅에는 여전히 꽤 많은 선교사들이 잔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힐은 철수 직전에 “변화하는 조선”이란 글을 <크리스천 스탠다드>(CS, 12 October 1940: 1050)에 실었다. 힐이 기독교회선교부의 총괄책임을 맡은 1940년 6월 1일부터 11월 16일 철수 직전까지 5개월 반 동안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초도리기독교회를 개척한 것이었고, 추가로 왕십리기독교회가 개척된 것이었다.

1940년 여름 힐과 김요한 목사가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갔을 때, 초도리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 할머니는 수년 전 감리교회 선교사와 접촉을 했었고, 여전히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집에서 전도 집회를 여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이 집회가 두 주간 이어지는 동안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었고, 집회가 끝날 무렵에 33명이 달빛이 비치는 동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초도리기독교회가 개척되었다. 이후에 최상현 목사도 협력하였다. 초도리기독교회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의 벽돌집을 구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는데, 일본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훼방을 놓았다. 일본은 한국에 체류하는 선교사들을 모두 스파이로 간주할 뿐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는 한국인들을 의심하여 핍박하였으며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하는 것을 불허하였다<“Responsive Koreans by John J. Hill Missionary to Korea,” CS, 15 February 1947: 118>. 그리고 9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초도리기독교회의 포교자로 송암 승응의 포교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4130호 4면(소화 15년 10월 28일)>. 초도리와 화진포 지역은, 김일성의 별장이 남아있는 것에서 보듯이, 해방직후 소련군정과 북괴치하에 있다가 6·25동란 때 국군의 북진으로 수복된 지역이다. 초도리교회의 목회자로 제출된 자는 경성부 송월절 32번지에 주소를 둔 정릉리기독교회의 포교자였던 박판조 목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4년 6월 30일 초도리교회의 포교소폐지계 및 포교자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제5352호(소화 19년 12월 6일)>.

왕십리기독교회는 백낙중 목사에 의해서 1940년 9-10월경에 개척된 것으로 추정된다<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왕십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하왕십리정 893번지)는 1940년 10월 26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관보 제4162호 5면(소화 15년 12월 5일)>. 그리고 왕십리기독교회는 1944년 6월 30일 일제에 의해 포교소폐지계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힐은 1940년 가을에 한국인성경훈련원을 개강하였으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일본경찰이 찾아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경훈련원을 폐쇄하라고 시달하고 돌아갔다. 이후로 일제는 선교사들을 더 심하게 탄압하였고, 특권을 박탈하였으며, 감시를 강화하였다.

2) 존 J. 힐 선교사의 태평양전쟁기간의 활동(1940.11.17-1949.02.17)

1940년 11월 16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온 후 존 힐은 한국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동안 목회에 매달렸다. 힐은 미국에서 교회들을 섬기는



존 힐(John J. Hill), 에스더(Esther Beavans), 첫째 브루스(Bruce), 둘째 버지니아(Virginia), 셋째 수잔(Susan). 31살 때인 1944년경 군목학교 입학할 앞둔 시점

동안이나 태평양전쟁 중에 군목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한국에 돌아갈 희망을 꺾지 않았다. 힐은 미시간 주 스톨지스(Sturgis, Mich.)에서 1941년 1월부터 1943년 4월경까지 교회를 섬겼고 1944년 9월 20일까지는 웨스트버지니아 주 패든시티(Paden City, West Virginia)에서 목회하였다. 이 무렵 힐은 에스더 비반즈와의 사이에서 브루스(Bruce), 버지니아(Virginia), 수잔(Susan)을 낳았다. 힐은 1944년 10월 5일 로웰을 떠나 매사추세츠 주 포트 데븐(Ft. Deven, Mass.)에 소재한 군목학교에 입학하였고, 5주간 훈련을 마친 후 중위로 임관되었으며, 루이지애나 주 클레이본 캠프(Camp Claiborne, LA)에 배치되었다

존 힐 중위는 1945년 3월 6일부터 해외군무를 시작하였다. 힐이 탄 배는 몇 차례 잠수함을 잘 피한 끝에 4월 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힐이 군목이 된지 6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도시는 일본군에 의해서 거의 파괴되었고, 끔찍한 잔학행위가 자행되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람들이 산 채로 불태워지고 여성과 아이들이 총검에 찢겨서 신체가 벌어진 채였다. 힐은 규모가 큰 수용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힐은 일본군에 잡혀서 수감된 후 기아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소속 선교사들을 발견하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레슬리 울프(Leslie Wolfe)의 사모, 윌리스 헤일(J. Willis Hale) 부부, 레이 칼슨(Ray Carlson) 부부와 자녀들, 에디스 쉴멜(Edith Shimmel)과 에델 존스(Ethel Jones)였다. 그들은 여전히 수척하였지만, 해방당시 그들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었다. 힐은 버논 뉴랜드(Vernon Newland) 부부가 이미 수일 전에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했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필리핀 선교의 개척자 레슬리 울프는 힐이 수용소를 방문하기 대략 두 주일 전에 사망하였다고 전했다. 선교사 울프는 수감생활로 인한 극심한 영양결핍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것이다. 힐 중위는 군용식량들을 그들에게 가져다주었고, 저녁까지 남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위로하였다. 그들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남아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었던 헌신적인 선교사들이었다. 미군들이 수감자들을 구원한 날은 일본군들이 수감자들을 기관총으로 몰살하기로 계획하고 그 실행날짜를 하루 남긴 날이었다. 단 하루 차이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미군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Letter from Chaplain John J. Hill, Somewhere in the Philippines, April 20, 1945” CS, 5 May 1945: 278>.

힐은 제41사단에 소속되어 필리핀 북부 전투지역과 남쪽 민다나오 잠보안가(Zamboanga, Mindanao)에 3개월 정도 주둔하였다. 그리고 나서 9월 18일경 필리핀을 떠나 3주쯤 후에 일본에 도착하였다. 항해 중에 역사적인 바탄(Bataan, 제2차 세계대전

의 격전지), 코레히도르(Corregidor, Manila만 입구의 화산섬)와 오키나와를 보았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를 둘러보았는데, 재박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힐은 10월 7일 이후 원자폭탄에 의해 파괴된 히로시마(Hiroshima) 근교의 히로(Hiro)에 주둔하였다<“Letter from Chaplain Hill, October 29, 1945,” CS, 22 December 1945: 808>.

힐은 민다나오 섬 잠보안가(Zamboanga)에 근무할 당시 8월 12일 주일날에 425명에게 설교하였다. 힐은 채플 때 초청에 응한 23명 가운데 6명에게는 바다에서 침례를 베풀었고, 17명한테서는 재헌신을 끌어냈다. 일본에서는 10월 28일 주일에 힐의 “그리스도인 목회예로의 부름”이란 설교를 듣고 5명의 젊은 군인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초청에 응하였다. 복음예로의 초청에는 4명이 추가로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이튿날 침례를 받기로 하였다<“Letter from Chaplain Hill, October 29, 1945,” CS, 22 December 1945: 808>.

그리고 1946년 1월 1일 시코쿠(Shikoku)에서 24사단에 합류하여 일본에서 6개월간 주둔하는 동안 히로(Hiro)에 이어서 1-2월에는 마쓰(Matsue), 오노미치(Onomichi), 마츠야마(Matsuyama)에서 근무하였고, 3월에는 오카야마(Okayama)에 주둔하였다.

존 힐 중위는 1946년 4월 1일에 일본을 떠나서 미국 시애틀에 12일 도착하였다. 그리고 19개월간의 군복 근무를 마치고 5월 14일 제대하였다. 힐 선교사는 제대 후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동안 1946년 7월부터 인디애나 주 월턴(Walton)과 온워드(Wonward)의 그리스도교회들에서 설교하였으며, 그리스도인봉사캠프와 집회 등에서 강연하였다. 9월 9일부터는 제대군인지원법(Army G. I Bill of Rights, 2차 대전 종전을 앞둔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대군인지원법을 만들어 전역 군인에게 대학진학 등록금 전액지원, 주택, 의료,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 권리장전)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교단소속이었던 버틀러대학교의 신학대학원(School of Religion, Butler University)에 입학하였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듬해인 1947년 8월 8일 M.A. 학위를 받았다. 힐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길게 공부할 수 없었다. 1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학위과정을 택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 힐은 제대 후부터 섬겨왔던 인디애나 주 월턴(Walton)과 온워드(Wnward)의 그리스도교회들을 1948년 6월 1일경에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선교모금 여행에 돌입하였다. 이런 노력과 기도 끝에 존 힐은 1940년 11월 16일 한국에서 강제로 철수한지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 서울에 도착하였다<“Hills Make Plans for Return to Mission Field,” CS, 10 April 1948: 229; “Latest News from the Hills of Korea,” KM, 1946년 10월호; “Latest Word from the Hill Family,” KM, 1947년 12월호; “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by John J. Hill, Seoul, Korea, April 28, 1949,” KM, 1949년 7월호; <https://www.lowellpl.lib.in.us/hilljohn.htm>>.

3) 존 J. 힐 선교사의 제2차 입국 선교활동(1949.02.18-1950.06.25)



한국기독교성경신학교(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 1949년 12월 9일)
 교수진: 좌측부터 성낙소, 존 힐(John J. Hill),
 최상현(공산군에 피납), 백낙중(공산군에 피납)

존 힐 선교사의 서울에서의 사역은 1949년 2월 18일부터 1955년까지 이어졌다. 힐 가족은 1949년 2월 18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연지동에 있는 2층 건물, 곧 송월동 선교부 건물과 사이즈가 비슷한 건물(2가족 거처, 지하실, 창고, 1-2개의 교실, 침례탕, 차고, 정원, 잔디, 방이 있었음)을 남장로교회로부터 월 75달러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였다. 힐 가족은 그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그곳에서 3월 15일 이전의 한국인성경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한국인기독교성경신학교(Korean Christian Bible Seminary)로 이름을 바꿔서 개교하였다. 18명의 남학생들이 등록하였고, 야간학생들은 50여명이 넘었다. 강의는 오전에 3시간씩 일주일에 네 번, 야간에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이뤄졌다.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가 사도행전, 기본원리, 누가복음, 야고보서 등을 가

르쳤고, 힐 자신은 신약서간들, 설교학, 요한복음, 마태복음, 계시록 및 영어성경클래스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그리스도교 기초들을 가르쳤다. 또 힐은 주일 아침과 목요일 밤에 영어성경클래스를 운영하였다. 힐은 매주 9시간 반을 강의하였다. 에스더 비반즈 힐도 금요일 오후에 가르쳤다. 보통 한 반에 7-10명 정도가 수강하였으나 영어성경클래스의 경우에 많을 때는 40-50명이 수강하였다. 교육비는 무료였으나 몇몇 학생은 생활이 어려워 매월 5-10달러의 생활비를 받아야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또 힐은 이 연지동 건물에 침례탕을 만들고 이곳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 신학교의 학생이기도 했던 김포교회의 최춘선 목사의 사모가 힐이 구입한 천으로 5일간에 걸쳐 꿰맨 여섯 벌의 침례복이 사용되었다<“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by John J. Hill, Seoul, Korea, April 28, 1949,” KM, 1949년 7월호; “Korean Bible Institute Reopened After Having Been Closed in 1940,” CS, 16 April 1949: 243; “Korean Missionaries Face Obstacles Because of Lack of Facilities,” CS, 27 August 1949: 549>.

신학교는 사직동 앞에 있는 필운동 그리스도의교회로 옮겼다. 학생 수가 70명에까지 이르렀다. 많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새로 세워지기도 했고, 교파 교단들에서 그리스도(인)의교회로 환원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한강 이남의 동서남북으로 변져 나갔다. 김은석 목사는 충청 이남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워지는데 공헌하였고, 미 공군 군목 할 마르틴도 도움을 주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의 출석 인원은 60-70명 정도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한 침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John



한국기독교성경신학교(필요동그리스도의교회, 1949년 12월 9일)
 앞줄 왼쪽부터 이흥식, 오현달, 최춘선(둘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성낙소, 최상현, 백낙중, 존라 에스더 비반즈(Ester Beavans) 힐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1949년 5월 8일 존 힐이 공덕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참석한 인원이 125명이었는데 소수의 성인남녀와 아이들과 백낙중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었다(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S, 25 June 1949: 405). 아현동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윤낙영 목사는 1949년 전반기에 존 힐이 85달러를 주고 매

입한 만리동 소재의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여 교회를 새로 개척하였다(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25 June 1949: 405). 존 힐은 1949년 5월까지 15개 교회가 있다고 했다가 이내 18개로 수정하였다. 힐은 1949년 5월 1일에 신탄진을 방문하였는데 임대한 오래된 창고건물에 250명이 모였다고 했고, 부강교회에서는 신화신학연구회가 주최한 백일성경공부가 김은석 목사와 의사 신현창 장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썼다(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S, 25 June 1949: 405).

힐은 1949년에 488명이 침례를 받았고, 1950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소 403명 침례를 받았으며, 힐 가족이 한국에 입국한 1949년 2월 18일 이후 6·25전쟁 직전까지 16개월 동안 882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였다. 교회는 42개로 증가하였다. 1950년 전반기에만 13개가 개척되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6월에 최춘선에 의해서 부여에서 23명이 침례를 받고 교회가 개척되었다("Hill Family Moves to Tokyo May Return to States," CS, 9 September 1950: 564; "John Hill, Missionary, Begins Work with Koreans and Japanese in Japan," CS, 16 September 1950: 581; CS, 19 May 1951: 309). 참고로 존 채이스는 1948년 말까지 10개 교회, 7명의 한국인 목회자에 의해서 총 116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KM, 1949년 7월호). 1937년부터 1950년 6월까지 총 42개의 교회에서 1950년 전반기에 세워진 13개와 1948년까지의 10개를 빼면, 1949년에만 19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 전반기에 기독교회선교부에 소속된 설교자들, 신학생들, 여전도사들은 총 75명 정도였고, 그 가운데 설교자가 40명을 차지하였다. 신학교 강의는 존 힐과 최상현, 성낙소가 성경과목들을 가르쳤고, 최상현과 백낙중이 영어를 가르쳤으며, 최상현은 역사과목도 가르쳤다. 존 힐과 신현창(의사, 부강교회)이 헬라어를 가르쳤다("Korean Christian Mission Past, Present, Future," CS, 19 May 1951: 309). 한국전쟁을 겪고 난 직후인 1955년 11월 말에 입국하여 기독교회선

교부의 사역 곧 존 T. 채이스와 존 J. 힐의 선교사역을 물려받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에 실시한 전수조사에 의하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총 75개였다<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FCK) 6월호>. 이 75개의 교회들은 존 채이스와 존 힐이 선교사역을 중단해야했던 1955년 말엽까지 최상현과 성낙소를 비롯한 여러 초기 사역자들과 함께 흘린 눈물과 핍박과 헌신과 희생의 결과물이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이렇게 갑자기 큰 숫자로 불어난 배경에는 충청 이남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와 그의 신화신학연구회의 백일성경공부 및 목포교회의 최요한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의 눈물과 고난이 있었다.

4) 존 J. 힐 선교사의 한국전쟁 중과 직후의 선교활동(1950.06.26-1955.07)

해방 후 교회숫자가 42개로 불어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시 큰 시련을 맞게 되었다. 힐 가족은 26일 새벽 3시경에 약간의 옷들과 두 권의 성경책 및 선교기록들만 겨우 챙겨서 인천에서 피난 배를 탔고, 배 안에서 부인 에스더에게 산통이 있었으므로, 배가 일본 땅에 닿자마자 후쿠오카(Fukuoka)의 군병원으로 직행하였다. 에스더는 병원에 도착해서 7월 1일 여아 린다 룿(Linda Ruth)을 출산하였다. 그들은 태어난 지 6일된 갓난아기를 안고 26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동경에 도착하여 요츠야선교부의 해롤드 심즈(Harold Sims) 선교사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John T. Chase, "Mr. and Mrs. John J. Hill Are Safe in Army Hospital in Japan," *CS*, 15 July, 1950: 436; "Hill Family Moves to Tokyo May Return to States," *CS*, 9 September 1950: 564; "Heartaches of War" and Harold Sims, "Missionary's View on Korean War," *Tokyo Christian*, July-August 1950: 2-3>. 힐은 8월 한 달 동안 동경 미카와시마(三河島) 소재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인기독교교회들과 일본인기독교교회들을 돕고, 이후 가루이자와(Karuizawa)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웠다<"John Hill, Missionary, Begins Work with Koreans and Japanese in Japan," *CS*, 16 September 1950: 581>.

힐 가족은 전쟁기간에 일본 도쿄에 집을 구입하여 거주하였다. 힐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 사역을 하였지만, 가족은 일본에 남아 있어야 했다. 1951년 9-10월경에 집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돈은 3,626달러 72센트였다. 이 집은 존 채이스가 모금한 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기독교회선교부에 있었다. 전후에 이 집은 팔렸고 판매대금은 기독교회선교부에 귀속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폴 잉그램(Paul Ingram)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집이 구입되기 전에는 월세 150달러 이상을 내야하는 임대주택을 얻어 살았다 <"Hill Family Purchases House in Tokyo; Mr. Hill to Return to Korea," *CS*, 3 November 1951: 691>.

그해 9월 서울이 수복되자 11월 5일 힐은 한국에 돌아와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28일 신학교를 개교하였다. 힐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이기구 목사(신갈그리스도의교회, 1952년 10월 3일 개척)와 김광수 목사(동역)

가장 중요한 한국인 지도자요, 설교자였으며, 교수였던 최상현과 두 명의 우리의 지도자들, 김양선[부강교회]과 최주민[왕십리교회]이 그들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납북되었고, 의심의 여지없이 서울의 다른 많은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시신들이 대충 묻은 무덤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이기구의 처는 미군의 폭격에 의한 장애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김광수의 식구들도 피살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함께 공부했던 신학생들 가운데

몇 사람들은 적어도 길으로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First Letter Received from J. J. Hill after His Return to Korea,” CS, 25 November 1950: 738; “Monetary Losses Slight Compared to Suffering of Koreans, Says Missionary,” CS, 16 December 1950: 787; “Korean Christian Mission Past, Present, Future,” CS, 19 May 1951: 309>.

6·25전쟁 중에 이기구의 아내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었고, 동굴 입구에 떨어진 포탄의 폭발로 사망한 다른 100여명과 함께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땅을 파고 그녀를 매장하려던 순간 그녀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을 안 남편 이기구는 그녀를 리어카에 싣고 내달려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으나 반신불구가 되었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 3월 26일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의 모친이 테일러에게 “몸의 한쪽이 마비된 채 힘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듯 그녀(이기구의 아내)의 두상(정수리)에 난 커다란 흉터를 보여 주었다.” 그녀의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Harold Taylor, “Middle Schools,” FCK, 1956년 6월호>.

서울에 남아있던 성낙소, 한형태, 이기구는 공산주의자들의 심문을 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공산주의 기독교단체 ‘민주기독교연맹’(Democratic Christian League)에 가입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연맹’ 가입은 신약성



김광수 목사 장례기념(1953년 9월 13일)

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1939년 매입한 선교회 건물은 3-4개의 폭탄을 맞았다. 힘은 파손된 이 건물의 소소한 부분부터 수리를 시작하였다<“Korean Missionary Begins Repairs on Damaged Mission Property,” CS, 9 December 1950: 771>. 힘이 거주했던 연지동 건물은 전체가 털리고 약탈당했다. 차, 가구,

옷, 음식, 비품, 기념품, 책을 잃었다. 음식은 귀하고 가격은 폭등했다. 힐은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을, 전향섭씨가 여전히 방 2개와 지하실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결국 손에 넣었다. 신학교는 1950년 11월 28일 재개되었고, 출석한 10명의 학생들을 3명의 교수들이 가르쳤다<“Monetary Losses Slight Compared to Suffering of Koreans, Says Missionary,” *CS*, 16 December 1950: 787>.

힐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12월 11일 다시 일본으로 철수하기까지 5주간 동안 서울에 머무는 동안 거의 모든 한국인 설교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공산군에 납북되거나 살해된 목회자들을 제외한 모든 설교자들이 각자의 강단으로 복귀하였다. 그들은 집과 재산의 손실과 교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힐이 보고한 한국의 전쟁 상황을 듣고 미국 교인들이 보내온 구재현금 가운데 964달러 73센트는 11-12월 중에 설교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쓰였고, 단지 63달러 78센트만 선교주택 수리에 쓰였다. 신학교가 다시 재개되었고 18명의 학생들이 출석하였다<“Hill Gives Outline of Work in Korea,” *Christian Standard*, 27 January 1951: 51>.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의 안전이 위험해지자 힐은 1950년 12월 11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일본에 있는 동안 힐은 한국인들이 보낸 편지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한국인 설교자의 절반은 안전하였고, 몇 명은 가까운 섬으로 피신하였다. 흩어진 설교자들은 각자가 피난처에서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었으며, 남부에서는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집과 모든 소유를 잃었다. 힐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매월 200-300달러씩 보냈다. 힐은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1951년 6월 18일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부산에 두 주간 머물면서 15명가량 되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소속 피난민들을 챙겼다. 힐은 당시 부산에서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John Hill Returns to Korea; Resumes Evangelistic Work,” *CS*, 4 August 1951: 483>.

6월 18일에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2주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피난민 형제들 15명가량을 만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6월 24일과 7월 1일 [주일]에 나무 아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 24일에 우리와 함께 일할 성실한 교파교단 설교자 한 명을 포함하여 세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큰 천막을 사서 거기 있는 형제들이 거처와 예배장소로 쓰도록 부산에 두고 왔습니다.

최춘선과 성수경 형제들과 나는 부산을 출발하여 이들간의 힘든 여정 끝에 7월 5[목]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입성하여 통행 및 거주증명서를 확보하고 보니 서울은 황폐하고 버려졌지만 깨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32-6번에 있는 기독교회선교부 저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비록 건물은 우리들을 요구하는 나쁜 상태였지만 우리가 작년 11월에 방문했을 때보다 크게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내부에 우리의 소유물들은 거의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방충망들이나 기타 가재도구도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출입문자물쇠들이 고장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대대적인 수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수경은 필운동교회의 집회들을 재개하였고 최춘선은 김포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형제들이 우리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준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고아원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1952년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
식사시간, 성수경 목사(왼쪽)와 존 J. 힐 선교사

1951년 7월 5일 힐은 최춘선(김포 교회 사역자)과 성수경(필운동 교회 사역자)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서대문 근처 송월동에 있는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을 되찾기 위해 성수경과 동행하였다. 전향섭은 탄환이 장전된 연발권총을 가지고 쫓아왔으나 선교회가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알고 물러갔다. 서울에 도착한지 이틀째가 되는 저녁부터 전도 집회를 갖기 시작하였다. 매일 저녁 참석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8월 4일 폭격을 당해 부서진 송월동 32번지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서 고아 21명을 수용하여 ‘그리스도의교회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시작하였다. 곧이어 2명은 친척들이 데려가 19명이 남게 되었으나 곧 이어 수용인원이 늘기 시작하였다. 최초 보육원 사역자들은 낸시 흥, 요리사 신여사, 차선생, 존 힐, 성수경, 조선생 부부였다<“Korean Officials Make Change in Orphanage Regulations,” CS, 15 September 1951: 581>. 곧이어 1953년에는 김종기(목사), 최상현 목사의 딸 최윤숙(권사, 최윤권 목사의 누님)도 직원으로 수고하였다. 나중에 대전 판암동 고아원의 총무가 된 박중현, 안나, 안 여사, 김동수(목사/통역, 해남교회 개척자), 한길자도 직원으로 수고하였다. 서울에 ‘그리스도의교회보육원(1951-1988, 1953년경 부평으로 이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힐은 인천(1952-현재), 대전(판암동 애생원, 1951-1970), 대구(1952-1954)에 각각 1개씩의 고아원의 설립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리의 서울 고아원이 시작된 지 얼마 못되어 이종만 형제가 인천에 고아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필자는 일정한 액수를 돕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한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낡은 2층 학교건물에 수용하고 있어서 아주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세워진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90명가량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우리 선교부는 송씨의 감독아래 있는 대전 판암동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고아원을 더 세우는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그들 고아원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쟁 중에 4개의 고아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제로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그들은 몇 곳의 미군부대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필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일본에 가 있는 동안, 도날드 캠프스라는 한 공군병사가 서울 고아원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고향에서 발행되는 신문, <미네아폴리스 스타>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신문에 그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편지가 신문에 실리고 난 다음부터 고아들을 위한 헌옷 새 옷 보따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1천 보따리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전혀 새 옷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헌옷 가지 하나라도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선교부 건물 3층 넓은 다락에 쌓아두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분류해서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인의류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1952년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
공부시간, 성수경 목사(좌)와 존 J. 힐 선교사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난 1955년까지도 옷 보따리의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30-39].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와 고아원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내국인 사역자들은 최윤권 목사, 노봉욱 장로, 성수경 목사였다. 힐이 조선 경성부 송월정에 머문 1939년과 1940년

에 이들은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 20세 청년이었다. 성수경과 최윤권은 각각 힐의 동역자들인 성낙소 목사와 최상현 목사의 아들들이었다. 성수경은 힐보다 6살 정도 어렸고, 노봉욱은 힐보다 12살 정도 어린 중학생이었다. 노봉욱은 평남 용강군 오신면 내덕리 노촌(노씨만 모여 사는 마을) 부락에서 태어나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5세에 서울로 올라와 휘문중학교에 입학하여 돈암동에 하숙을 정한 후, 중학교에 입학한 1939년 봄 첫 주일 때부터 줄곧 돈암정기독교회에 출석하였다. 최윤권은 힐보다 18살 정도 어렸다[노봉욱 편저, "나와의 만남: 에텐원 이사장 노봉욱,"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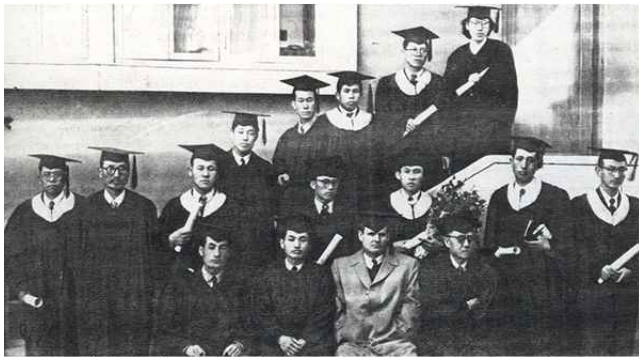
존 채이스 선교사는 일제에 빼앗긴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1949년까지도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존 힐 선교사는 재산관리인으로부터 5-6월경에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것은 4월 22일이었다<"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KM, 1949년 7월호>. 그러나 이 재산은, 힐 요한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1952년경에 곧 몰수당한지 10여년 만에 비로소 환수가 이뤄졌다. 1955년에 힐 요한 선교사의 사역을 이어받은 테일러 선교사는 이 선교부 건물을 포함해서 1958년에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까지 모두 팔아서 북서울 역천동(현재 신사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를 건립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채이스가 눈물과 수고로 마련하고 지켜내려고 했던 이 건물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남의 손에 넘어갔다.



앞줄 좌측 2번째 폴 잉그램(Paul Ernest Ingram)
네 번째 김동수 목사(동역), 다섯 번째 성낙소 목사(1953년경)

힐의 가족은 1953년 5월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1954년 여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힐에게는 가장 혹독한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힐은 에스더의 비행을 존 채이스 선교사에게 폭로한 폴 잉그램에게 나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잉그램은

이 무렵 25살가량이었고, 에스더는 34살이었으며, 힐은 41살이었다. 선교사들 사이의 불쌍사나운 이전투구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 교감이었던 성낙소 목사는 1954년 6월 25일 신학교를 휴교 조치하고, 채이스에게 내한을 요청하였다. 이 일로 존 채이스가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Long Beach)에서 1954년 6월 22일에 발송한 전보 내용 곧 한국 선교사들인 존 힐 부부에 대한 모든 보증을 철회한다는 것과 존 채이스와 존 힐로부터 관련된 진술을 들은 후견인들(Burris Butler, Harrold McFarland, Roy B. Shaw, W. L. Jessup)이 채이스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 1954년 7월 3일 <크리스천 스탠다드>지에 실렸다<“To All Friends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CS, 3 July 1954: 429; “Regarding the Chase Telegram,” CS, 4 September 1954: 562>. 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한 채이스와 힐의 모교회 장로들, Christian Standard의 편집자와 다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후원자들은 힐 가족의 한국선교사역 승인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힐이 기독교회선교부와 한국인들 사역에서 손을 완전히 떼야한다고 권고하였다<“Regarding the Chase Telegram,” CS, 4 Sep 1954: 562; 27 August 1955: 546, 555>. 동년 9월 하순에 내한한 채이스는 성낙소, 힐, 잉그램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힐과 잉그램을 귀국하도록 조치하였다. 폴 잉그램은 1955년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신학교 졸업식(1955년 3월 3일)
앞줄 좌측부터 이신, 김동철, 존 힐, 김동수(통역),
졸업생(무순): 김현수(뒷줄 끝), 함태영(좌측 세 번째), 최병식,
김태수, 송창현, 조국형, 성수경, 정희진, 이종윤, 김봉석, 유현성, 변승택

1월 8일 귀국하였고, 힐은 버티다가 1955년 11월 말에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의 사역 곧 존 T. 채이스와 존 J. 힐의 선교사역을 물려받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선교사 부부에게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한 송월동 선교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1955년 7월 5일 본의 아니게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나야 했다[<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

재단, 2006): 24; 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악기파 합동 건,”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김종기, 조동호 편집(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이때 힐은 세 자녀(부루스, 버지니아, 수잔)만 데리고 떠났고, 에스더 비반즈는 린다 룯과 함께 한국에 남아있었다(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그리고 존 T. 채이스가 한국선교에서 손을 완전히 떼 시점은 1956년 1월 13일이었다(John T. Chase, “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S, 28 January, 1956: 60).

에스더 에벌린 힐(Esther Evelyn Hill)은 1920년 11월 17일 인디애나 주 워렌(Warren, IN)에서 아버지 로렌스 리로이 비반즈(Lawrence Leroy Beavans)와 어머니 미리 해밀턴(Mira Hamilton) 사이에서 태어나 2006년 2월 4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San Antonio, TX)에서 86세에 별세하였다.

에스더가 1939년 6월 21일 아침 부산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나이는 만 18세였다. 그리고 한국에 온지 17개월만인 1940년 11월 16일 인천항에서 총 219명의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철수하기 위해서 마리포사(Mariposa)호를 탄 다음 날 배 안에서 만 20세 생일을 맞이하였다.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며 중일전쟁을 펼치면서 조선인들에게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황국신민서사를 낭독하게 하며 미국선교사들을 스파이로 간주하던 최악의 시기였던 1939-40년 사이 암울한 조선 땅에서 선교사 부인으로서의 생활은 젊은 에스더에게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시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미국에서도 경제대공황기여서 매우 어렵던 시기였다. 만 20세에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에는 목회자 부인의 삶을 시작하였고, 20세 초반에 이미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다. 게다가 남편인 존 힐이 군목이 되어 태평양전쟁터로 떠남으로써 또 다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야했을 것이다. 존 힐이 제대한 이후에도 목회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혼자서 세 명의 자녀를 키우며 많은 일을 감당해야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부는 세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1948년 2월 18일 해방된 한국 땅으로 돌아왔고, 서울 연지동에 살면서 매우 활발하게 선교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불행히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해야했다. 갓 서른 살에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에스더는 남편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주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아니한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일본 도쿄에서 혼자서 네 자녀들을 돌보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했을 것이다.

에스더는 1950년 6월 26일 새벽 3시경에 한국을 탈출할 때 만삭의 몸이었다. 힐 가족은 약간의 옷들과 두 권의 성경책 및 선교기록들만 겨우 챙겨서 인천에서 피난 배를 탔고, 배 안에서 부인 에스더에게 산통이 있었으므로, 배가 일본 땅에 닿자마자 후쿠오카(Fukuoka)의 군병원으로 직행하였다. 에스더는 병원에 도착해서 7월 1일 여아 린다 룯(Linda Ruth)을 출산하였다(John T. Chase, "Mr. and Mrs. John J. Hill Are Safe in Army Hospital in Japan," *CS*, 15 July, 1950: 436; "Hill Family Moves to Tokyo May Return to States," *CS*, 9 September 1950: 564; "Heartaches of War" and Harold Sims, "Missionary's View on Korean War," *Tokyo Christian*, July-August 1950: 2-3).

이 때 태어난 '린다 룯'의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린다 룯이 존 힐의 부고문(2009년)에서와 힐의 세 번째 부인인 아이린의 부고문(2011년) 모두에서 존 힐의 생존자 혹은 별세자에서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이고, 에스더 비반즈의 부고문(2006년)에 서만 '린다 왕'(Linda Wang)이 에스더의 생존하는 딸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에 따르면, 기독교회선교부에 운전수 왕씨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에스더 힐 사이에 비행관계가 힐 가족이 1953년 5월경에 안식년을 갖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힐이 안식년을 갖는 동안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을 맡 24살가량의 폴 잉그램 선교사가 맡았는데, 힐 가족이 미국에 머무는 사이에 잉그램이 에스더와 왕씨 사이의 비행관계를 존 채이스에게 폭로하였다는 것이다. 1950

년 7월 1일 일본 후쿠오카 군병원에서 태어난 ‘린다’가 왕씨의 딸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다. 물론 ‘린다 왕’이란 이름이 왕씨와 결혼한 후 남편의 성을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에스더가 별세할 당시 만 56세였을 ‘린다 왕’(Linda Wang)이 미혼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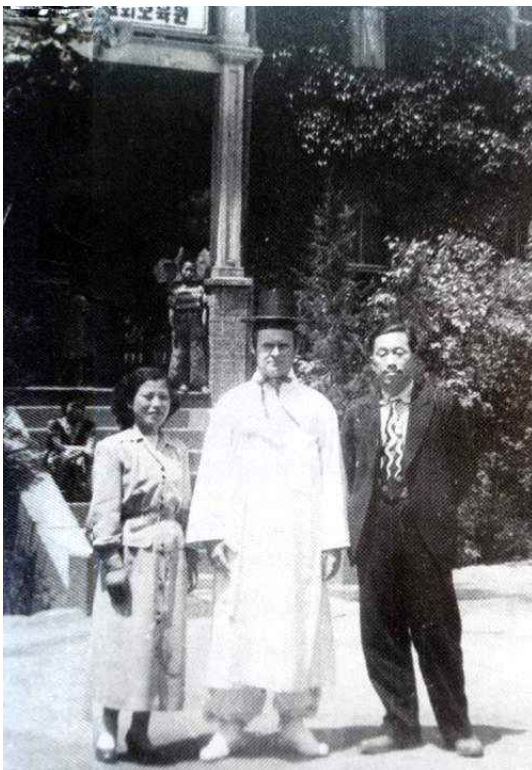
에덴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옥 이사장에 따르면, 힐의 부인 에스더 비반즈가 한국인 신학생 2명과 부적절한 혼외관계에 빠진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였고, 그 중 한 명은 결혼한 두 아이를 가진 아빠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에스더가 4명의 자녀를 가진 한국인 남자 친구와 살기 위해 둘 사이에서 난 아이를 데리고 1955년에 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노봉옥 편저, “John J. Hill 이력서,”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24], “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일본 후쿠오카(Fukuoka)의 군병원에서 30살에 출산한 ‘린다’로서 왕씨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 에스더가 힐에게 태어난 세 자녀를 놓고 35살에 오직 당시 5살이었을 ‘린다’만을 데리고 가출하여 살림을 꾸린 남자는 이(李)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에스더의 유가족들에 1940년대에 힐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 말고도 이씨 성의 한국이름을 가진 네 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린다 왕’과 또 다른 세 명의 딸들이 더 있었는데, 이 마지막 세 명의 딸들은 바르(Barr)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거나 바르씨가 먼저 부인에게서 얻은 딸들일 수 있다.

에스더는 린다와 이씨와 그의 네 아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살다가 텍사스 주 포트 샘(Fort Sam)에서 일자리를 얻어 이주하였고, 여러 남성들을 사랑하였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샌안토니오(San Antonio)에서의 도시생활을 즐겼다. 에스더 에벌린 바르(비반즈)[Esther Evelyn Barr (Beavans)]는 86세로 2006년 2월 4일 별세하였다[John T. Chase, “Mr. and Mrs. John J. Hill Are Safe in Army Hospital in Japan,” *CS*, 15 July, 1950: 436; “Hill Family Moves to Tokyo May Return to States,” *CS*, 9 September 1950: 564; “Heartaches of War” and Harold Sims, “Missionary’s View on Korean War,” *Tokyo Christian*, July–August 1950: 2–3; <https://www.legacy.com/us/obituaries/sanantonio/name/esther-barr-obituary?pid=88864608>].

5) 기타 선교사들의 입국활동

1950년대 초에 몇몇 선교사들이 입국하였다. 1929년경에 출생한 폴 어네스트 잉그램(Paul Ernest Ingram)은 1952년에 힐의 선교를 돕기 위해 선교사가 되었다. 잉그램은 14살에 권투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많은 경기에서 승리하였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16세에 군에 입대하여 미군정시대에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앞글들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소속의 할 H. 마틴(Hal H. Martin)이라는 군목이 있었다. 마틴은 탁구선수였기 때문에 사병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 그 무렵 4월에 잉그램은 다른 네 명의 군인과 함께 마틴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잉그램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그

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분을 그곳으로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그곳은 갈기갈기 찢긴 나라입니다”(I found Christ in Korea. I'm going to take him back there. It's a torn-apart country). 그리고 잉그램은 19세 때 제대를 하고, 링컨성경학교(1944년 설립, 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에 입학하여 23세 때인 1952년에 졸업하였다. 잉그램은 학생시절부터 인디애나 주 코빙턴(Covington)에서 이미 3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부인 조안(Joan)과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1952년 후반기에 일본 도쿄(東京)에 도착하여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존 J. 힐(John J. Hill) 가족과 함께 일본에 체류하였다<“Korean Christian Mission,” CS, 17 May 1952: 318; Emma Rivers Milner, “Church News: Back to Korea, As Missionary,” The Indianapolis Times: 4, Saturday, July 26, 1952>. 이 기간에 잉그램은 힐과 함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을 일본에 남겨 둔 채 한국에 들어와 사역하였다. 잉그램은 1953년 한국에 입국하여, 힐의 가족이 안식년(1953년 5월-1954년 여름 전)으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회선교부를 맡아 관리하였다. 힐의 부재 기간에 선교부 고아원을 운영하였고, 장충동 건물에서 신학교를 재개하였으며, 기독교회선교부에 인접한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 미군의 도움으로 3층짜리 신학교 건물을 세웠다. 잉그램은 1954년 9월 하순 존 T. 채이스(John T. Chase)의 주도로 열린 선교사 회의에서 ‘기존 선교사들의 한국 사역 철수’가 결정된 이후, 1955년 1월 8일 한국을 떠났다[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악기파 합동 건,”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1960)].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그리스도의교회보육원(1952년경)
최윤숙 선생(좌)권 목사의 누님라 손할 선교사

1954년에 입국한 메리 반힐(Mary Barnhill)은 대전 판암동에 위치한 그리스도(인)의교회의 보육원인 애생원에서 사역하였다. 애생원은 1951년에 설립된 후 1958년까지 송조순이 원장으로 섬긴 보육원으로, 반힐은 애생원에서 숙식하며 헌신하였다. 반힐은 사역 도중 전염성 B형 간염에 걸려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서 요양하였다. 리라 톰슨(Lila Thomson)이 부평보육원에서 돌아와 반힐을 간호하였는데, 그녀도 간염에 전염되고 말았다. 이 불행한 일로 반힐은 1955년에 출국하였다.

1953년 입국한 리라 톰슨(Lila Thomson)은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에서 사역하였다.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은 존 J. 힐(John J. Hill)이 1951년 8월 4일 서울 송월동 선교부 건물에 설립한 것으로 19명의 고아들로 시작되었는데 곧 이어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나 부평으로 옮기게 되었다. 톰슨은 부평보육원의 부지매입과 건축을 책임졌고, 1956년까지 그곳에서 숙식하며 헌신한 진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었다. 이후 톰슨은 상처한 미군 중사 히람 힐러(Hiram Hiller)와 결혼한 후 1956년 3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톰슨은 히람 힐러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고, 나중에 얻은 아들이 미국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리라 톰슨 힐러는 35세에 별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60883965/lila-maxine-hiller>>.

제인 키넛(Jane Kinnett)은 1955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기독교회 선교부’의 일을 도왔다. 1955년에 메리 반힐(Mary Barnhill)과 리라 톰슨(Lila Thompson)이 둘 다 B형 간염에 걸렸고, 이로 인해서 반힐이 귀국할 때 제인 키넛도 함께 1955년 11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워드 데이비스(Howard Davis)는 한국전쟁 직후 1953년에 내한하여 장충동 신학교에서 교수로 헌신하다가 이듬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데이비스는 부인 캐스린(Kathryn)과 함께 1951년에 일본에 입국하여 1964년까지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선교사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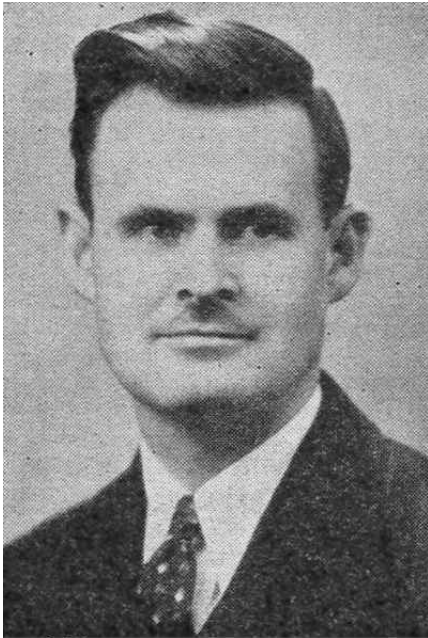
로버트 웨스트(Robert West)는 한국전쟁 직후 1953년에 내한하여 장충동 신학교에서 교수로 헌신하였다. 웨스트는 부인 오드리(Audrey)와 함께 1953년에 일본에 입국하여 도쿄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사역을 하다가 1956년 사역지를 오카야마(Okayama, 岡山)현 하야시노(林野)로 옮겨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해롤드 테일러가 1955년 11월에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자로 한국에 입국했을 때, 서울에 남아 있던 선교사는 한 달 전에 결혼한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뿐이었다. 남편인 히람 힐러의 한국주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라 톰슨 힐러는 이듬해인 1956년 3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ober 1959: 3-4].

6)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회선교부 소속 선교사들

(1) 힐 Hill, John J. 1913.03.22.-2009.11.04.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목사(D.D.), 신학교 설립자 및 교장, 교회 개척자.

존 J. 힐(John Jesse Hill) 선교사는 1913년 3월 22일 오클라호마 주 아피톤(Ahpeatone)에서 태어나 1931년 인디애나 주 로웰 고등학교를 차석(Salutatorian)으로 졸업하였고, 1936년 테네시 주 존슨성경대학(Johnson Bible College, 현 Johnson University)을 우등(Salutatorian)으로 졸업하였다. 1947년에는 인디애나 주 버틀러 대학



존 힐(John J. Hill, 1946년경) 선교사

교(Butler University)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63년에 콜로라도 주 버튼 칼리지 및 신학교(Burton College and Seminary)에서 명예신학박사(D.D.) 학위를 받았다. 존 힐은 미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등지에서 목회활동을 했고, 태평양 전쟁 때 미 육군 군목(대위 예편)으로 미국, 필리핀, 일본에서 복무하였다. 존 힐은 존슨성경대학 4학년 재학시절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한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온타리오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기 위해서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1939년에는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와 결혼하였다. 또 같은 해 미국에서 일본 동경에서 활동했던 W.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 선교사 부부의 일생기(一生記), 『타오르는 횃불』을 읽고, 특히 한국 선교에 관련된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924년 이후 한국에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일하는 한국인 목회자들이 있었으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 소속이었고, 1935년 3월에 미국교회에서 파송된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와 그의 가족이 입국하였으나 가족의 건강문제로 그해 11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와 그의 가족이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 선교사로 입국하였으나 그들 역시 1939년 존 힐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 수개월이내에 출국한 상태였다.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약 4년 동안 한국에서 기독교회 선교부를 설립하여 활동했던 존 채이스 선교사 부부도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 상태여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이 거의 없던 불모지나 다름없던 때인 1939년 6월 21일 서울에 입경하여 1972년 은퇴할 때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존 힐은 1959년 이후 대전시 가장동에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를 세워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였고, 1964년 4월 17일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손을 허가받았으며, 신학교 안에 선교부를 두고 충청도와 전라도에 집중적으로 교회들을 세우고 후원금을 알선하였다. 존 힐은 1940년 가을부터 채이스 선교사가 설립한 목회자 양성소를 서울에 개교하였으나 일제 말기의 발악적인 기독교탄압으로 인해서 수개월도 유지시키지 못한 채, 짐을 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른 미국인 선교사 가족들과 함께 그해 11월 16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인들의 철수 후 일 년 정도 지나서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 휘말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다. 존 힐은 1948년 2월 18일에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서울 연지동에 살면서 1949년 3월 15일 서울성서신학교를 개교하여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으나 불행히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하였다. 일본에

머무는 일 년여 동안 존 힐은 한국어 공부에 주력하였다. 그해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전쟁의 악화로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 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에 돌아온 존 힐은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 선교부'에서 1951년 8월 4일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크리스천 미션 고아원을 시작하였고, 인천과 대전 판암동, 대구에 각각 고아원 설립을 돕고 후원하였으며, 아이들의 미국입양을 도왔다. 그 후 존 힐은 가정문제로 1955년 한국을 떠났다가 미혼 여성이었던 제인 키넬트(Jane Kinnett) 선교사와 1956년 5월 25일 재혼하여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하였으며, 동년 12월 1일 한국성서신학교를 개교했다. 이밖에도 대전시 가장동에 버지니아 고아원을 설립하였으며, 1959년 이후 세 곳의 고아원들, 곧 부산의 성광원, 연무대의 에덴보육원, 인천 그리스도의교회 고아원들과 고등공민학교, 맹아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 존 힐 선교사는 1972년 6월 60세 때에 은퇴하였다. 존 힐은 부인 제인이 소천한 후 이듬해인 1983년에 미조리 주 조플린(Joplin)에서 아이린(Irene Waltma, 1913-2011)을 만나 재혼하였다. 존 힐은 소천 때까지 에덴보육원과 한국의 열악한 5개 그리스도의교회들을 매월 후원하였고, 수천 권의 성경을 러시아에 반입시켰으며, 나병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하였다. 존 힐은 2009년 11월 4일(수) 오후 4시 58분 96세로 미주리 주 조플린에서 별세하여 호프 산 공원묘지(Mt. Hope Cemetery)에 영면하였다.

[주요저술]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Taejon Korea, 18 April 1972), <http://kccs.pe.kr/rmes002.htm>; 初譯: 『씨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2.htm>(1999.3).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서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John Hill)』(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In Memory of John J. Hill, 1913-2009", <https://masonwoodard.com/book-of-memories/2136655/hill-john/obituary.php>; "Irene Waltman Hill, Obituary", <https://www.parkermortuary.com/obituary/1233910>.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장)

(2) 키넬 Kinnett → Jane Hill 1921.10.23.-1982.06.29.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1921년 10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하여 1946년 오리건 주 유진(Eugene)의 노스웨스트 기독교대학교(현 Bushnell University)를 졸업하였다. 졸업



제인 힐(Jane Kinnett Hill, 1921-1982) 선교사

한 1946년 10월 31일부터 중국 쿤밍에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여, 1949년에는 미얀마 북부에서 1년간 사역하였다. 그리고 1951년 9월부터 1955년 여름까지 일본 오사카(大阪) 성경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다가 1955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기독교회 선교부’의 일을 돕다가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메리 반힐(Mary Barnhill)과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가 B형 간염에 걸리자, 반힐과 함께 1955년 11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제인은 이듬해인 1956년 5월 25일 존 힐과 결혼하였다. 제인은 물리 찬이라는 중국 고아 소녀를 비공식으로 입양하여 데리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건너와 존 힐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제인은 초등부터 중등과정까지 가르치는 크레스톤 그레이드 학교(Creston Grade School)에서 교사로 일한바 있으며, 힐과 결혼한 후인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인디애나 주 레이크 카운티 소재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다. 1959년 8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대전에 정착하였으며, 1972년 6월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사역하는 동안 1973년 9월부터 1976년 6월까지 학교 요리사로 일하였다. 제인은 B형 간염으로 1982년 6월 29일 소천 하였다.

[주요저술] Jane Hill, ‘한국에 있어서의 잊혀지지 않을 일들’, 『썰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3.htm>(1999.3).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서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콤파출판사, 2018);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John Hill)』(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In Memory of John J. Hill, 1913-2009”, <https://masonwoodard.com/book-of-memories/2136655/hill-john/obituary.php>; “Irene Waltman Hill, Obituary”, <https://www.parkermortuary.com/obituary/1233910>.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장)

(3) 잉그램 Ingram, Ernest Paul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폴 어네스트 잉그램(Paul Ernest Ingram)은 1929년경에 출생하여 1952년에 링컨성경 학교를 졸업하였다. 한국에서 존 힐과 함께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사역하였고, 4개 주에서 목회사역을 하였으며, 플로리다 주에 두 개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도



Paul Ingram (Paul and Joan Ragsdale Ingram)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Joan, Paulette, Paul Ingram, David

왔다. 2012년 4월 9일 미주리 주 멕시코 (Mexico, MO)에서 별세하였다 <Lincoln RESTORER_June2012_Final.pdf>.

그는 14살에 권투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많은 경기에서 승리하였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16세에 군에 입대하여 미군정시대에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소속의 할 H. 마틴(Hal H. Martin)이라는 군목이 있었다. 마틴은 탁구선수였기 때문에 사병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 그 무렵 4월에 잉그램은 다른 네 명의 군인과 함께 마틴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결심

한 잉그램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분을 그곳으로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그곳은 갈기갈기 찢긴 나라입니다”(I found Christ in Korea. I'm going to take him back there. It's a torn-apart country). 그리고 잉그램은 19세 때 제대를 하고, 링컨성경학교(1944년 설립, 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에 입학하여 23세 때인 1952년에 졸업하였다. 잉그램은 학생시절부터 인디애나 주 코빙턴 (Covington)에서 이미 3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부인 조안(Joan)과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1952년 후반기에 일본 도쿄(東京)에 도착하여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존 J. 힐(John J. Hill) 가족과 함께 일본에 체류하였다<“Korean Christian Mission,” CS, 17 May 1952: 318; Emma Rivers Milner, “Church News: Back to Korea, As Missionary,” The Indianapolis Times: 4, Saturday, July 26, 1952>. 이 기간에 잉그램은 힐과 함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을 일본에 남겨 둔 채 한국에 들어와 사역하였다. 잉그램은 1953년 한국에 입국하여, 힐의 가족이 안식년(1953년 5월-1954년 여름 전)으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회선교부를 맡아 관리했다. 힐의 부재 기간에 선교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장충동 건물에서 기독교성경신학교를 재개하고, 기독교회선교부에 인접한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 미군의 도움으로 3층짜리 신학교 건물을 세웠다. 잉그램은 1954년 9월 하순 존 T. 채이스(John T. Chase)의 주도로 열린 선교사 회의에서 ‘기존 선교사들의 한국 사역 철수’가 결정된 이후, 1955년 1월 8일 한국을 떠났다[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약기파 합동 건,”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1960)].

부인 조안 잉그램(Joan Ragsdale Ingram)은 1928년 8월 19일 미국 인디애나 주 클린턴 카운티 커클린(Kirklin, Clinton County)에서 레스터와 에바 래그즈데일(Lester C. and Eva Gwin Ragsdale)의 딸로 태어났다. 잉그램과는 신학교에서 만나 1950년 1월 22일에 결혼하였다. 그녀는 1944년에 제임스타운(Jamestown)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녀는 켄터키기독교대학(Kentucky Christian College), 링컨성경대학(Lincoln Bible

College) 및 퍼시픽성경대학(Pacific Bible College)에서 공부하였다. 조안은 “Parkview Christian Church의 창립 회원이었다. 암 투병 끝에 2002년 1월 31일 73세의 일기로 인디애나 주 플레인빌(Plainville)에 소재한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조안은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출판하였다(Posted Thursday, January 31, 2002 7:00 pm Journal Review in Crawfordsville, Indiana; Gill Funeral Home in Washington, IN; Lincoln_RESTORER_June2002_Final.pdf; Emma Rivers Milner, “Church News: Back to Korea, As Missionary,” The Indianapolis Times: 4, Saturday, July 26, 1952).

[참고문헌]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 1959;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대전: 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서울: 쿰란, 2018; Posted Thursday, January 31, 2002 7:00 pm Journal Review in Crawfordsville, Indiana; Gill Funeral Home in Washington, IN; Lincoln_RESTORER_June2002_Final.pdf; Emma Rivers Milner, “Church News: Back to Korea, As Missionary,” The Indianapolis Times: 4, Saturday, July 26, 1952.

FCK: For Christ in Korea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장)

(4) 반힐, 톰슨, 데이비스, 웨스트

*반힐 Barnhill, Mary Louise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선교사역을 도우려고 미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로 대전 판암동에 위치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보육원인 애생원에서 사역하였다. 애생원은 1950년대 초에 설립된 후 1958년까지 송조순이 원장으로 섬긴 보육원으로, 반힐은 1954년 입국하여 애생원에서 숙식하며 헌신했다. 사역 도중 전염성 간염에 걸려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서 요양하였다. 리라 톰슨(Lila Thomson)이 부평보육원에서 돌아와 반힐을 간호하였는데, 그녀도 간염에 전염되고 말았다. 이 불행한 일로 반힐은 1955년에 출국하였다.

[참고문헌]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 1959;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FCK: For Christ in Korea

*톰슨 Thompson, Lila 1925.08.26.-1961.06.17.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선교사역을 도우려고 미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로, 1953년 입국하여 서울 송월동 기독교

교회선교부 보육원에서 사역하였다. 기독교교회선교부 보육원은 존 J. 힐(John J. Hill)이 1951년 8월 4일 서울 송월동 선교부 건물에 설립한 것으로 처음 19명의 고아들로 시작했는데 곧 이어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나 부평으로 옮기게 되었다. 톰슨은 부평보육원의 부지매입과 건축을 책임지고, 1956년까지 그곳에서 숙식하면 헌신한 진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었다. 이후 톰슨은 상처한 미군 중사 히람 힐러(Hiram Hiller)와 결혼한 후 1956년 3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톰슨은 히람 힐러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고, 나중에 얻은 아들이 미국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톰슨은 한국에서 얻은 간염으로 35세에 별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 1959;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60883965/lila-maxine-hiller>.

FCK: For Christ in Korea

*데이비스 Davis, Howard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부인 캐스린 데이비스(Kathryn Davis)와 함께 1951년 일본에 입국하여 1964년까지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에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1953년 내한하여 신학교육에 헌신하다 이듬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참고문헌]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웨스트 West, Robert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부인 오드리 웨스트(Audrey West)와 함께 1953년 일본에 입국하여 도쿄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사역을 하다가, 1956년 사역지를 Okayama(岡山)현 하야시노(林野)로 옮겨 교회를 개척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1953년 내한하여 신학교육에 헌신하다 일본으로 돌아갔다.

[참고문헌]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백종구(전 서울기독교대학교 교수)